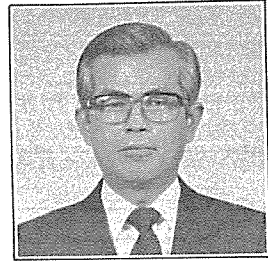


“創造革新의

원천기술개발 적극추진,”



李正五 원장

韓國과학기술원

돌이켜 보면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모든 국민이 기대하는 과학한국의 주역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 이름은 국내외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금년은 제6공화국이 출범하는 역사적인 첫해이며, 우리 민족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중요한 한해인 동시에 그동안 다져온 科學技術革新을 위한 여건을 더욱 튼튼히 하고, 기술개발 활동을 더한층 활성화 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期待된다.

더우기 올해는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되면서 수입개방압력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각종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원천기술개발의 필요성과 질높은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자체양성이라는 2대 과제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의 하나이다.

또한 정부로서는 GNP 대비 과학기술 투자의 5% 확대조정 및 연구인력양성등 2000년대 科學技術發展 長期計劃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도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하는데 政策을 結集시킬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이러한 국가적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과학기술진흥과 기술개발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하며, 교수, 연구원, 직원, 학생이 한몸이 되어 이상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과학기술원의 발전방

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보다 질높은 발전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1988년에는 한국과학기술원이 자주적 과학기술 개발능력확보를 통한 기술선진화를 주도하여 “창조, 혁신의 원천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學事運營에 있어서는 박사과정 중심의 질높은 교육과 연구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미 박사 300여명을 포함하여 총 86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 박사과정 중심의 교육체제강화

특히 금년에는 150명선을 넘는 박사를 배출하게 됨으로써 박사과정중심의 理工系 대학원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며, 1988년 한해동안 배출되는 고급과학기술인재는 700명선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어 사회 각계각층에서 과학기술원 졸업생의 활약상이 더욱 크게 돋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일 학과에서 수행하기 힘든 大型·複合研究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 명실공히 고급인재양성의 독보적 산실로 선진국 진입에 일익을 담당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 과학기술원·과학기술대 연계 체제 구축

1988년에는 지난 87년부터 추진해온 과기원·

과기대 연계운영체제를 확실히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대학 연계운영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사→석사→박사로 이어지는 인관된 통합교과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교원 이사제도의 보완, 강의교류 및 학생공동지도, 과학기술원 박사과정 학생의 과학기술대 교육 조교활용 등 실질적인 연계운영 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 국책대형연구과제에 중점

과학기술원은 1988년도에는 연구계약고 목표를 작년보다 증액된 223억원을 목표로 하여 특정과제 176억원, 수탁과제 40억원, 기본연구과제 6억원 등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성격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형 연구과제를 중장기에 걸쳐 계속 수행함으로써 특정과제가 전체과제의 70%선을 넘어서게 할 계획.

◇ 목적기초연구 활성화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타분야 종합연구가 필요한 장기종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방형 기술개발체제를 탈피하여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목적기초연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조기에 습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국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대형종합연구 프로그램으로 2000년대의 고도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미래의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미래핵심 소재개발프로그램” 및 21세기에 산업기술을 고도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단생산자동화기술개발프로그램”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미량약물분석시스템 확립

또한 88서울 올림픽에 대비한 100여종의 微量藥物分析시스템 확립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될 수퍼컴 가동과 함께 보다 완벽한 전산화 업무등 올림픽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의 科學能力을 세계적으로 과시할 계획이다.

◇ 대덕연구단지내 건설사업 박차

작년에 기공식을 가진 대덕 연구단지내 본원 건설사업도 그동안 순조로히 진행되어 금년에는 5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작년에 이어 본격적인 건물공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진척도에 따라 과학기술원 본부의 조기이전도 구상중에 있다.

